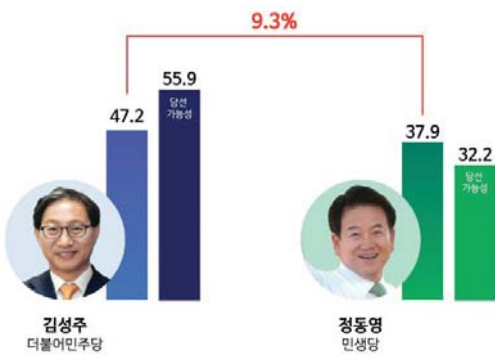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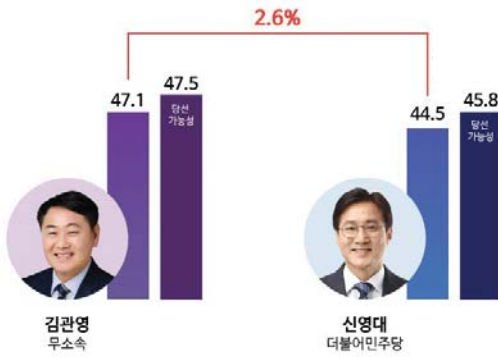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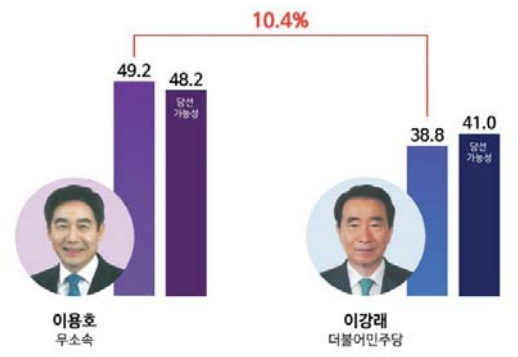
전주병 후보자 지지도



군산 후보자 지지도



남원·임실·순창 후보자 지지도



(단위: %)

*여론조사: 뉴시스 전북취재본부-(주)코리아정보리서치, 자료:(주)코리아정보리서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북도내 총선 격전지 여론조사 결과

전주병 · 군산 ‘접전’ · 남원임실순창 ‘오차범위 밖’

▲전주병, 1~2위 후보간 격차 한자 리수로 좁혀져

4·15 총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최대 격전 선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주병 1·2위 후보간 격차가 한자리 수로 좁혀져 접전 양상이 나타났다.

뉴시스 전북취재본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전주병 선거구(인후3동 제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3명의 국회의원 후보 대상으로 투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기호1번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47.2%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기호 3번 민생당 정동영 후보가 37.9%로 바짝 뒤쫓고 있다.

두 후보간 격차는 오차범위를 넘어선 9.3%p 차이를 보여 물밑 경쟁이 뜨거워진 격전지이다.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최복기 후보는 5.1%를 차지했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9.9%로 1·2위 후보간 격차보다 많아 후보간 지지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에 따른 지지도의 경우 남성은 김성주 후보 48.2%, 정동영 후보 40.5%로 격차가 좁혀져 있고 여성은 김성주 후보 45.7%, 정동영 후보 34.3%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

20대 이하, 40대 이상에서는 김성주 후보가 앞서 있고 30대는 정동영 후보가 앞섰다.

세부지역에서는 모두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성주 후보는 1지역(송천1동, 송천2동)에서 정동영 후보를 17.2%p 차로 앞섰다.

2지역(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은 10.0%p, 3지역(진북동, 인후1동, 인후2동, 금암1동, 금암2동)은 1.6%p, 4지역(우이1동, 우이2동, 호성동)은 5.1%p 앞섰다.

당선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김성주 후보 55.9%, 정동영 후보 32.2%로

중앙선관위 9일 공표기간 전, 뉴시스 전북-코리아정보리서치 지난 7~8일 ARS전화조사로 진행

전주병 - 지지도 김성주 47.2% · 정동영 37.9%, 당선가능성 김성주 55.9% · 정동영 32.2%

군산 - 지지도 김관영 47.1% · 신영대 44.5%, 당선 가능성 김관영 47.5% · 신영대 45.8%

남원임실순창 - 지지도 이용호 49.2% · 이강래 38.8%, 당선 가능성 이용호 48.2% · 이강래 41%

김성주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복기 후보는 4.1%로 나타났다.

지지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8.0%로 나타났다. 당선가능성은 남녀 모두 김성주 후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당선가능성 전망은 모든 연령층에서 김성주 후보가 앞섰다.

전주병 유권자들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인물'을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으로 꼽았다.

국회의원 후보 선택기준으로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공약' 32.1%, '소속정당' 27.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인물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여성은 공약이 더 많았다.

연령에서는 20대 이하와 40대는 '공약'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30대와 50대 이상은 '인물'을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1·3·4선거구 지역에서는 '인물'이 중요했지만 2선거구(덕진동, 팔복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는 '공약'을 꼽았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열린민주당 19.3%, 정의당 10.9%, 민생당 9.8%, 미래한국당 8.7%, 국민의당 5.8%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가 선거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4월7일부터 8일까지 이틀동안 전주시병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ARS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은 유선전화

RDD 100.0%이며 응답률은 1.5%,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7%p이다.

▲군산, 김관영 오차범위 내 신영대에 앞선

군산시 지역구에서는 현역인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가 선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6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은 유선전화 RDD 100.0%이며, 응답률은 4.9%,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7%p다.

4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무소속 김관영 후보 47.1%,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후보 44.5%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두 후보간 격차는 2.6%p 차이를 보여 전북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선거구로 떠올랐다. 미래통합당 이근열 후보는 3.0%,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순정 후보는 1.2%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4.1%로 나타나 후보 간 지지확보를 위한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에 따라 지지도가 달랐다. 남성의 경우 김관영 후보가 여성은 신영대 후보가 앞섰다. 연령에서는 20대 이하,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30대와 40대는 신영대 후보를 선택했다.

지역에서는 군산 1, 4선거구는 신영

대 후보가 군산 2, 3선거구는 김관영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기준으로는 '인물'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으며, '공약' 30.0%, '소속정당' 24.0%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인물이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이며, 여성은 인물과 공약이 비슷했다. 연령에서는 20대 이하의 '공약'을 먼저 선택했고, 30대 이상은 '인물'을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1, 2, 3선거구 지역에서는 '인물'이 중요했지만, 4선거구(신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는 '공약'을 꼽았다.

당선 가능성은 김관영 후보 47.5%, 신영대 후보 45.8%로 혼전 양상을 보였다. 이근열 후보와 최순정 후보는 2% 이하로 낮았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4.0%로 나타나 막판까지 예측불허하다.

당선 가능성은 남성의 경우 김관영 후보가 더 높다고 봤고 여성은 신영대 후보가 더 높다고 전망했다.

연령별 당선 가능성 전망은 지지도와 마찬가지로 20대 이하,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김관영 후보가 30대와 40대는 신영대 후보가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5.0%로 가장 높았고, 열린민주당 22.9%, 정의당 11.6%, 미래한국당 9.0%, 국민의당 4.3% 순으로 나타났다.

▲남원임실순창 1~2위 후보 지지도 격차 10.4%p

남원·임실·순창군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를 오차범위(±4.3%p) 밖으로 따돌리며 10.4%p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전북취재본부는 선거여론조사전문기관인 (주)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4월 7일 하루동안 남원·임실·순창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 전화 조사를 진행했다.

4명의 후보에 대한 투표 지지도 조사에서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49.2%로 1위를,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는 38.8%로 뒤를 따랐다. 양 후보 간 격차는 여론조사 오차범위(±4.3%p) 밖으로 벌어진 상태였다.

이어 정의당 정삼모 후보 3.8%와 무소속 방경채 후보 1.8% 순으로 조사됐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는 응답률이 6.4%로 후보 간 지지확보를 위한 막판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성별 지지도에서는 남성의 경우 이용호 후보 45.3%, 이강래 후보 42.8%로 광팬했다. 여성 지지도는 이용호 후보 53%, 이강래 후보 34.9%로 조사됐다.

연령별 지지도에서는 이용호 후보가 이강래 후보를 대부분 앞섰다. 이강래 후보는 20대 이하에서 우위를 점했을 뿐 3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이용호 후보를 따라가지 못했다. 지역별 지지도는 남원시와 임실군의 경우 이용호 후보가 선두를, 순창군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48.2%를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

보가 41%로 오차범위 내로 예측불허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이강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여성은 이용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당선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같았다. 30대 이하에서는 이강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고 40대 이상에서는 이용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지역별 당선가능성에서는 남원시와 순창군에서 이용호 후보가 높았고 임실군에서는 이강래 후보가 높게 나타났다. 양 후보는 지역별 지지도와 당선가능성이 혼재돼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와 함께 남원·임실·순창군민들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를 선택할 때 '인물'과 '공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를 선택할 때 선택기준으로 인물 34.4%, 공약 34.1%, 소속정당 21.8% 등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인물을 중요하게 보며 여성은 공약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20대 이하의 소속정당이 1위를 차지했고 30대 40대 50대는 공약, 60대 이상은 인물을 우선으로 선택했다.

남원시는 인물, 임실군은 소속정당, 순창군은 공약을 중요 기준으로 삼았다.

이번 조사는 뉴시스 전북취재본부가 선거여론조사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4월 7일 하루동안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11명을 대상으로 유선 ARS전화조사로 진행됐다.

조사대상자 선정방법은 유선전화 RDD 100%이며 응답률은 9.1%,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4.3%p이다. 통계보정은 2020년 3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를 기반으로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뉴시스

공정위 조사 의뢰 vs 검찰 고발... 전주병 '공방전'

정동영, 공정위에 도의원 시절 입찰담합 조사 의뢰

김성주, "허위사실 유포" 검찰에 고발 맞대응

4·15 총선 전주병 지역구가 후보 간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로 막바지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전북도의 회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가 자신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한 누리넷 대표로 활동하던 시절인 2005년 입찰 담합을 시도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며 "분명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날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에 정식으로 조사를 의

뢰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구체적으로 "당시 전북도생활산업진흥원 서버 구매 입찰을 때내는 과정에서 유찰될 것을 우려해 둘러리 업체를 세우고 사전 협의한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 김성주 후보가 도의원 시절 한누리넷 입찰건에 참여한 H업체가 담합에 참여했다"고 했다.

김성주 후보도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다.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김 후보는 "패색이 지은 민생당 정동영 후보의 불법선거와 흑색선거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불법유

인물 배부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이미 관련 내용 작성을 마무리했다. 검찰에 조만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금액을 써낸 누군가 낙찰자가 되는 것이다. 조달청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된 계약에 대해 연관을 갖지 않은 후보에게 혐의를 씌우는 것은 공작정치이다"며 반박했다.

특히 그는 한누리넷사와 연관성에 대해 "먹고살기 위해 시작한 회사가 50%의 지분은 갖고 있지만 도의원이 된 2006년 이후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은 곳으로 정 후보가 주장하는 입찰에 만약 담합이 있었다면 회사를 직접 취재해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4·15 총선 사전투표

전북도내 사전투표율 역대 최대치

도내 243개 투표소에서 실시... 33.07%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율보다 높아

지난 10~11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전북도내 243개 투표소에서 실시됐다.

도내 사전투표율은 최종 33.07%로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에 참여한 전북도민은 전체 선거인 154만2579명 중 51만102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34.22%)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국 사전투표율인 24.95%와 비교해도 8.12% 이상 웃돌았다.

시군별로는 남원시(45.64%), 진안군(45.43%), 순창군(44.34%), 장수군(41.70%), 임실군(40.89%), 무주군(39.65%), 완주군(35.49%), 고창군(34.70%), 김제시(34.24%), 부안군(33.83%), 정읍시(33.52%), 군산시(32.20%), 익산시(31.50%), 전주시 덕

진구(30.52%), 전주시 완산구(29.14%) 순이다.

남원시는 45.64%로 사전투표율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주시 완산구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까지 도내에서 가장 낮은 29.1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도내 역대 사전투표율은 제6회 동시지방선거 16.07%와 제19대 대통령선거 31.64%, 제7회 동시지방선거 27.81%를 보였다. /특별취재반